

1인 잡지 <우리 말과 헌책방> 창간한 헌책방 마니아 최종규 씨 한 줄을 읽더라도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최종규(33) 씨를 만나기 위해 인천 배다리에 있는 헌책방 골목에 들어섰다. 반달처럼 굽어진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헌책방들이 삼삼오오 짝지어 있다. 단오 날 한낮에 내리찍는 햇볕이 따가워서인지 헌책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좀체 보이지 않아 조용한 골목이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더라도 헌책방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 사람들 말소리가 귀한 곳이라. 그는 조금 늦었다고 했다.

지난 6월 1일에 문을 연 사진책 도서관 '함께 살기'가 세 들어 있다는 아담한 4층짜리 건물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그럴싸한 간판이 붙어 있지 않아 '함께 살기'를 잘 찾은 것인지 잠시 긴장하게 만들었다. 반바지와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그는 큼지막한 배낭을 메고 허리까지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절끈 묶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서울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

“한 사람을 키우고 살찌운 책들을 모아둔 곳이에요. 공공도서관은 책을 전시해 놓은 진열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살기'는 '최종규'라는 사람이 읽은 책을 볼 수 있고, 또한 한 사람이 또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음미할 수 있는 곳이지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책 보따리가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있다. 3.5톤 트럭으로 석 대를 옮겼다고 한다. 트럭 한 대에 만 권을 실었다고 하니 도서관을 채운 장서의 규모가 짐작된다. 사진이 중심이 된 책은 모두 이곳에 터를 마련한 것처럼 그도 쉴 수 없을 정도이다. 누구든지 '함께 살기'에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다.

“정독, 통독, 완독은 방법일 뿐이지요. 책을 읽는다는 의미는 마음으로 울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책을 읽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줄을 읽더라도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해요.”

《모든 책은 헌책이다》(2004), 《헌책방에서 보낸 1년》(2006)을 펴낸 그는 최근에 격월간 1인 잡지 <우리 말과 헌책방>을 창간했다. 헌책과 함께 한 삶은 그가 고등학생이었던 1992년에 인천 배다리 헌책방 중 하나인 아벨서점에서 절판된 참고서 두 권을 구입하면서부터이다. 한 달 후부터는 주인이 문 닫을 시간이라고 할 때까지 책방 귀퉁이에서 책 세상에 빠졌다. 하루 종일 이 책 저 책을 읽어도 성에 차지 않아 한두 권씩 구입했고,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땀땀이치고 헌책방에 들어앉아 책을 읽었다. 인터뷰 중간 중간 보여준 책에는 구입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새 책이라고 해서 얼마나 새 책이겠으며, 헌 책이라고 해서 얼마나 묵은 책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책들이 서점에 깔리면 새 책이고, 판권에 며칠 안됐으면 새 책이라고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냥 똑같은 책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새 책으로 대우를 받는 책이 있죠. 내가 얼마나 읽을 책이나에 따라서 새 책과 헌 책으로 구분해요. 이런 나름의 기준은 몇 년 지나면 쓰레기가 되는 책을 사서 꼭 내 머릿속에 짊어 넣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해주죠.”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우리 말과 헌책방>을 구독하겠다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바람에 열 달치의 도서관 세를 낼 수 있는 싹짓돈이 들어와 흐뭇해하는 최종규 씨. 1년에 약 3천 권을 구입한다는 그는 책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을 살 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웃들이 책을 사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풍족해지면 그분들께 베풀고요.”

돈과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오가면서 그 사이에 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책의 존재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으리라. **한 줄**

